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9. 20. (수) 11:00 / 9. 21. (목) 조간 배포 2023. 9. 20.(수) 09:00

농식품부,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 한시 인하

-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 20% 한시 인하(9~12월)를 통해 쌀값 부담 총 24억 수준 절감 기대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는 정부의 「추석 민생안정 대책(8.31.)」의 일환으로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9~12월 기간 중 20%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.

그간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(2002~)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~90%를 할인하여 판매 중이다.

* 생계·의료수급자 : **2,500원**/10kg(정상가격 25,310원의 약 90% 할인)
주거·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**10,000원**/10kg(약 60% 할인)
기초생활보장시설 : **12,650원**/10kg(약 50% 할인)

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은 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.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현행 가격에서 20% 수준을 추가 할인하여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.

농식품부는 특별 할인공급이 시작되는 9월 정부양곡 배송기간(택배)이 추석 연휴기간과 중복됨에 따라 지자체, 가공·택배 등 관련 업체와 긴밀하여 협조하여 정부양곡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.

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“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을 통해 연말까지 약 24억원의 쌀값 부담이 추가적으로 경감되는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히면서, “향후에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정부양곡의 매입, 보관·관리, 가공 및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의 정부양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 라고 하였다.

담당 부서	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	책임자	과 장	변상문 (044-201-1810)
		담당자	서기관	이한병 (044-201-182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